광주 민주당 권리당원 접수 10명중 3명은 '유령신청자'

25~30% 주소지·주민번호 불일치
필체 똑같은 무더기 입당원서도 다수
광주·전남 접수 숫자보다 크게 줄 듯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모집 결과 지역에 따라 25~30% 가량이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 하지 않는 '허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당 신청자 10명 중 2~3명은 주소와 주민번호 등이 다른 '유령 신청자'인 셈이다.

이는 내년 민주당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공천은 곧 당선, 경선 승리는 곧 당선'이라는 생각 탓에 권리당원 모집에 '올인'하는 등 지역별로 모집경쟁이 과열되면서 생긴 부작용으로 해석된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에서 접수된 5만 5000여 장의 입당원서 중 1만 장을 전산 입력한 결과, 지역에 따라 25~30% 가량은 주소지·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가 불일치 하는 등의 오류로 당원 가입이 불허됐다.

대부분 불허된 입당원서는 당원 모집 마감일을 앞두고 무더기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당원 불법 모집 논란을 빚은 광산구갑·을 지역에서 하루 동안 무더기로 접수됐던 일부 입당원서의 필체가 똑같아 전산 입력 과정에서 이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앞서 온라인 불법 당원 모집 과정에서 불거진 '동일 주소, 다수 입당자' 문제도 여전하고, 특정 정치세력들이 다수의 선거구에서 권리당원을 무더기 모집하면서 '허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직적인 당원 모집이 '허수 권리당원'을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지난달 31일까지 접수 마감된 입당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오는 15일까지 전산 입력을 마칠 예정이다. 따라서 애초 접수 마감된 것으로 알려진 광주 5만 5000여 명, 전남 6만여 명 보다는 숫자가 많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숫자는 8월 중순께 정확하게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허수' 당원이 많은 이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치 신인 가점 확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인 여론조사 각각 50%씩 반영 등 당내 경선 룰이 과거와 달리 일찌감치 정해지면서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당내 정치 신인 가점이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선거구별로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이 늘어난 점도 허수 권리당원 속출이라는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 신인들은 본인의 득표 수에 신인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건 가운데 이에 맞서 기존 지역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위원장 등도 권리당원 확보에 나서면서 '허수 권리당원'이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 신인들은 인지도면에서 기존 정치인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권리당원 모집에서 득표율을 최대한 올려야 하는 탓에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권리행사를 위해선 8월 1일 이전에 입당을 해야 하고, 2020년 1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반면, 전남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허수 권리당원이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은 권리당원 투표뿐 아니라 여론조사의 분위기도 이끌었기 때문에 권리당원 수가 당내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지역 권리당원 허수가 많은 것은 신인들의 출마 준비가 늘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19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남부대 마켓스트리트 내 잔디광장에서 8일 외국인 선수들이 맥주를 들고 건배를 외치고 있다.

맥주파티·문화공연…남부대 잔디광장은 '축제와 교류의 장'

GWANGJU 2019 Fina WORLD MASTERS CHAMPIONSHIPS

마스터즈수영대회 주 경기장
세계 선수단·시민 어울림 한마당

'2019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의 주 경기장인 남부대학교에 마련된 마켓스트리트 잔디광장(우정의 동산)이 세계 각 국 선수단과 시민들의 작은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각종 문화공연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 대에는 세계 각국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와 교류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국가대표들이 출전해 메달과 기록 경쟁을 벌이는 선수권대회와 달리 마스터즈대회는 참가에 의미를 두고 수영을 즐기는 수영 동호인들과 가족 참가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남부대 마켓스트리트 잔디광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넓은 잔디밭과 햇볕을 피할 수 있는 파라솔과 의자, 푸드트럭, 공연 무대, 게임 부스 등 휴식과 공연 감상, 체험 공간 등이 모두 마련되어 있어서다. 이곳은 우선 오감을 자극하는 푸드트럭의 다양한 음식이 선수단과 시민들을 유혹한다. 치킨부터 닭꼬치, 스테이크, 핫도그, 소떡소떡까지 다양하게 마련된 음식들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마스터즈대회 기간 이곳의 분위기는 세계선수권대회와는 사뭇 다르다.

훈련과 연습으로 지친 몸을 달래듯 편히 쉬다 갔던 선수권대회와는 달리 마스터즈대회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맥주파티를 열고 축제를 즐기듯 현장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각종 문화공연이 시작되는 저녁시간 때가 되면 이곳은 축제의 장으로 변한다. 흥겨운 음악공연에는 어깨 춤을 추고, 각 국 선수단과 시민이 한데 어울려 맥주 한잔에 우정을 쌓는 등 교류의 공간도 되고 있다.

각종 문화공연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연인에게 풍선으로 사랑을 고백하는가 하면 마술사의 공연에서는 보조 공연자로 적극 나서기도 한다.

미국 여자 수구팀의 켈리 이튼 선수는 "이곳은 매일 축제 분위기라 자주 찾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르면 오늘 개각…3~4개 부처 장관 교체

법무 조국·주미대사 문정인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9일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8일 "청와대가 검증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9일 개각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장관 3~4명, 장관급 3명 정도가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예상대로 차기 법무부 장관에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맡을 경우 최근 새로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라인'을 이끌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도 이번에 교체된다. 차기 농식품부 장관으로는 김현수 차관의 승진 기용이 유력하며, 여가부 장관 후보로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 후임자 검증 문제 등이 겹치며 이번에는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장관이 교체된다면 후임으로는 김태유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가 첫 번째로 거론된다.

이처럼 법무부·농식품부·여가부 등 3곳, 과기부까지 포함될 경우 4곳의 장관 교체가 점쳐지는 가운데 일부 장관급 인사들도 이번에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석 중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관가에서는 장승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용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대신해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였던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의 이름도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미대사 발탁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5·18' 배경 음악…"광주의 아픔 위로하고 싶었다"

아티스틱 솔로 프리 금메달 유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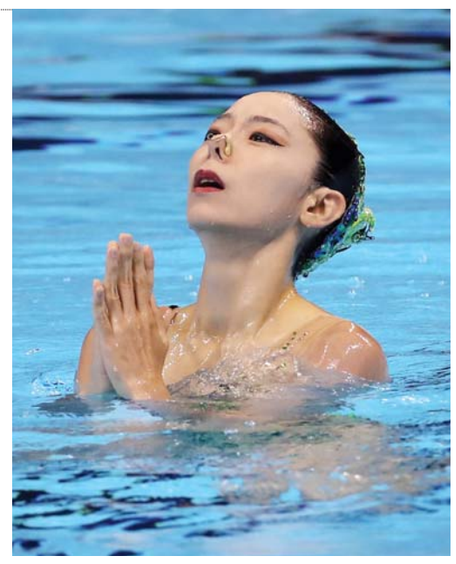
2019 광주세계수영마스터즈대회 아티스틱 수영 경기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연기가 펼쳐져 광주시민들의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연기 주인공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은메달 2관왕 출신의 유나미(40·사진)씨. 현역 은퇴 뒤 14년 만에 동호인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첫 출전한 유씨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아티스틱 수영 솔로 프리(40~49세)에서 총점 151.6933점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유씨는 이날 경기에서 가수 정태춘이 부른 '5·18'을 배경 음악으로 오월 광주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는 혼신의 연기를 펼쳤다. 슬픔과 아픔을 표현한 연기는 마지막에서 모든 광주시민들의 상처가 씻겨지길 바라는 치유의 기도로 승화됐다.

유씨는 "광주의 아픔을 위로하는 무대로서 생애 가장 뜻 깊었던 도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이라는 노래를 듣고 이 노래는 꼭 광주에서 크게 울려 퍼져야 한다고 생각해 대회 참가를 결심했다"면서 14년 만의 복귀 배경을 설명했다.

유씨는 이어 "그날의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들의 슬픔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번 연기가 광주시민들에게 자그마한 위로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그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했다"고 마음을 전했다. /최권일 기자 cki@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협의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080-815-8150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QR코드를 참고하세요
알고 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4% 내외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 지역경제까지 생각하는 지역특화산업 부활 (전주 한지)
●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지원센터 설치
● 군산·거제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 1천억 무담보·무이자 대출
● 3~7세 아동·65세 이상 치매노인 위치알리미 무료 보급
● 65세 이상 조합원 헬스케어 「어부바 효(孝) 예탁금」
준법감시필 : 제 2019-17호 (2019.7.26) / 유효기간 : 2019.8.7~2020.8.31
평생 어부바 신협